

2019년 10월 12일 시행 / 2019년 지방직 7급 필기시험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오대혁 교수(수원공무원경찰학원)

문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 ㉠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1. 정답 ①

해설 [품사-대명사, 관형사] 난도 中

㉠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것인데, 그 대상이 발화된 진술 내용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오답해설 ②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관형사이다.

③ 화자와 청자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④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다.

문 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2. 정답 ②

해설 [쓰기-보고서 작성] 난도 下

주거지를 관광명소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문제이다.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나 매출 실적의 분석은 이 글에서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진 것이다.

문 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낚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불
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
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① ㄱ, ㄷ, ㅅ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ㅅ

3. 정답 ②

해설 [한글맞춤법] 난도 下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 형태이므로 ‘~을/를 붙이다’ 형태가 ‘~이/가 붙다’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부치다’로 쓴다고 보면 된다.

* 붙이다: 1. ‘붙다(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사동사. 2. ‘붙다(3. 붙이 옮아 타기 시작하다)’의 사동사. 3. ‘붙다(6. 조건, 이유, 구실 따위가 따르다)’의 사동사.

* 부치다: 1.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2.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3.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 ㉠ ‘부친다’라고 써야 옳다. ‘숙식을 부치다’의 ‘부치다’는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 ‘부치는’이 맞다.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를 갖는 경우다.
- ㉢ ‘붙여’가 맞다. ‘말을 걸거나 치근대며 가까이 다가서다.’의 의미를 갖는 경우다.
- ㉣ ‘붙이고’라고 써야 옳다. ‘우표를 (편지봉투에) 붙이다’의 자리에 쓰인 형태다.
- ㉤ ‘부처’라고 써야 옳다.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의 의미를 갖는 경우다.
- ㉥ ‘붙였던’이 맞다. ‘붙다(2.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의 사동사의 경우다.

문 4.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보살은 자기 자신이 불경의 체험 내용인 보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일체의 타인에게도 그의 진리를 체득시키고자 정진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함과 같은 자리(自利)를 위하여 보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든지 이타(利他)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나만이 개인적 자각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적 자각에 입각한 것이니, 나함은 언제든지 개인 본위이고 개인 중심주의인 데 대하여 보살은 사회 본위이고 사회 중심주의인 것이다.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둘째 단락의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정보 공유 과정상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됨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린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6. 정답 ④

해설 [독해-일치] 난도 中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고,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고 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곡선에서 찾는다는 것은 맞는 진술이며, 그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면 안 된다.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 [illegible]

7. 정답 ③

해설 [한자성어] 난도 中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정신성(昏定晨省)’이 효녀 지은의 행위를 잘 드러내는 사자 성어이다.

* **昏**(어두울 **혼**) **定**(정할 **정**) **晨**(새벽 **신**) **省**(살필 **성**):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오답해설 ① 肝(간 간) 膽(쓸개 담) 相(서로 상) 照(비출 조):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親密)히 사귀.

② 磨(갈 마) 斧(도끼 부) 爲(할 위) 針(바늘 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忍耐)로 성공(成功)하고야 만다는 뜻.

④ 孤(외로울 고) 掌(손바닥 장) 難(어려울 난) 鳴(울 명): 외손백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 상대(相對) 없이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

문 8. 높임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장님, 벡타이가 잘 어울리시네요.
- ② 어머님, 아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③ 선생님,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 ④ 시장님, 저에게 여쭙 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8. 정답 ④

해설 [통사론-높임법] 난도 下

‘객체 높임법’에 따른다면 ‘여쭙다’는 ‘묻다’를 대신하여 쓰여서 ‘~께’ 형태의 객체인 부사어를 높일 때 쓰는 동사이다. ‘할머니께 여쭙’ 형태는 가능해도 ‘저에게 여쭙’는 잘못 쓰인 것이다.

오답해설 ① ‘넥타이’(부장님의 소유물)가 ‘부장님’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므로, 부장님을 높이기 위해 그의 소유물인 넥타이를 높이는 ‘간접높임’ 형태인 ‘어울리시네요.’가 맞다. ‘어울리네요.’는 잘못이다.

② 압존법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님’을 더 높이기 위해 주어진 ‘아비’를 낮춰 ‘안 들어왔다’고 한 것이다. ‘안 들어오셨습니다.’는 주어를 ‘아비’라 하였으므로 잘못이다. ‘아비’는 낮추려는 의도를 지닌 어휘이기 때문이다.

③ 청자인 ‘선생님’과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이 모두 쓰였다.

문 9.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은 항상 열 시쯤 돌아온다.
- ② 나는 사과를 천 원어치 샀다.
- ③ 그녀는 스무 살남짓 되어 보였다.
- ④ 그 일은 이십 세기경 일어난 일이다.

9. 정답 ③

해설 [띄어쓰기-접사와 의존명사] 난도 上

‘스무㉞살㉞남짓’이 맞는 표현이다. ‘남짓’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이다.

오답해설 ① ‘쫘’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쓴다. ‘모레쫘/그쫘/얼마쫘/마지막쫘/그런 사정쫘/10월 13일쫘’과 같이,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여 적는다.

* 즘: 일이 어찌 될 무렵을 뜻하는 의존명사이다.

예) 그들이 그 도로를 통과하려고 할 즘이었다.

②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쓴다.

④ ‘경’이 시간이나 날짜 따위를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쓴다. ‘깨’, ‘무렵’, ‘쫘’으로 순화할 어휘로도 이야기된다.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넬 빅예 아즐가 넬 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헤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희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0. 정답 ③

해설 [고전시가] 난도 上

(가) 「공무도하가」는 남편인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결국 돌아가신 임을 어찌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서경별곡」은 배를 타고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다른 여인을 만날까 걱정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이별’을 만들어내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④ (가)는 매우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나)는 사공에게 그의 아내가 음란하다며 입을 모시고 가는 배를 불러 세우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희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쭤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펼쩍 뛰며) 왔따! 든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예?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않는 사람이여!	
곰 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① ㉠: 체념 조로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③ ㉢: 지친 듯

④ ㉣: 애걸 조로

11. 정답 ②

해설 [회곡] 난도 中

‘성삼’이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라는 말을 통해 선주 ‘임제순’과 따져봐야 함을 말하자 “시끄러웠!”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다. 비아냥거리는 투는 부자연스럽다. “신경질적으로”가 맞는 지문이다.

오답해설 ① ㉠에는 “알았음녀.....(알았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선주 ‘임제순’의 빚 독촉에 체념했음을 보여주는 ‘체념 조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③ ㉢에는 선원들끼리 말다툼을 하던 상황에서 선주 ‘임제순’이 이름을 불렀을 때 “말씀하시게라우.....”라

고 하며 나타나는 어조이므로 “지친 듯”이 적절하다.

④ ㉔에는 배를 묶어두겠다는 것에 대해 배만은 내어달라고 하는 어조이므로 “애걸 조로”가 자연스럽다.

문 12. ㉑ ~ ㉔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㉑)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㉒)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㉓)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㉔)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㉑ | ㉒ | ㉓ | ㉔ |
|---|----|----|----|----|
| ① |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② |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③ |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④ |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12. 정답 ①

해설 [독해-문맥에 맞는 어휘] 난도 中

㉑에는 ‘정책’과 호응하는 어휘 ‘시행’이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 시행(施行)되다: 법령이 공포된 뒤에 그 효력이 실제로 발생되다.

㉒에는 ‘가격이나 자격, 품등 따위의 서로 다른 정도’를 뜻하는 ‘차이’와 같은 의미의 ‘격차’가 쓰이는 것이 문맥적으로 합당하다.

* 편차: 수치, 위치, 방향 따위가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

㉓에는 ‘기반’이 적절하다. ‘모스크바어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이라는 표현에 합당하다. ‘기반(基盤)’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하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어를 방식으로 한’이라는 표현은 문맥에 잘 맞지 않는다.

㉔에는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졌음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므로 ‘고양(高揚)’이 적절하다.

* 고양(高揚): 1. 높이 쳐들어 올림. 2.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 지양(止揚):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 ‘피함’, ‘하지 않음’으로 순화.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㉑ 별 헤는 밤

㉒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㉓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㉔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
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
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교
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
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 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
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
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㉑: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㉒: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㉓: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㉔: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13. 정답 ③

해설 [쓰기] 난도 下

㉔은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㉑은 기사의 제목이다.
- ② ㉒은 부제에 해당한다.
- ④ ㉔은 본문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다.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이 아니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뺄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테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14. 정답 ③

해설 [현대시] 난도 下

시 텍스트에 나와 있는 부분만 확인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작품의 시작부터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고 하며 마지막 행에서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라고 하여 미래를 낙관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오고, 온다’ 등의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긍정적인 세계가 올 것임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너는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봄(화자가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표상하고 있는 시어)’을 ‘너’라는 인칭대명사로 표현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

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15. 정답 ③

해설 [독해-내용의 일치] 난도 中

세 번째 단락에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 인간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상한 대로 실현되었다는 ③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첫 번째 단락의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굽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 ② 첫 번째 단락의 끝 부분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 ④ 마지막 단락에서 과거 시대들이 상상한 것을 만들어가는 기술 개발의 시간들이었던 데 비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여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밝히고 있다.

문 16. ㉠ ~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관해서 ㉢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 성실한 노력에 따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① 殞命 自書傳 厭世的 成實
- ② 運命 自書傳 鹽稅的 成實
- ③ 殞命 自敘傳 鹽稅的 誠實
- ④ 運命 自敘傳 厭世的 誠實

16. 정답 ④

해설 [한자] 난도 上

동음이의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다.

㉠ 運(돌다, 운수 운) 命(목숨 명): 1.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ㄴ명4(命)·명운(命運). 2.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 殞(죽을 운) 命(목숨 명):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유의어: 별세, 서거, 사망.

㉡ 自(스스로 자) 敍(차례 서) 傳(전할 전):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

㉢ 厭(싫을 염) 世(대 세) 的(과녁 적):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또는 그런 것.

* 鹽(소금 염) 稅(구실 세):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 誠(정성 성) 實(열매 실): 정성스럽고 참됨.

* 成(이룰 성) 實(열매 실): 곡식 따위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음.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갖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

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킁킁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誨)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17. 정답 ①

해설 [고전소설] 난도 中

자연의 묘사를 통한 주제의 강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기에 빠지자 아침을 하는 북곽 선생의 모습, 열녀라 칭송을 받는 동리자의 부도덕한 모습을 통해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을 주제화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② ‘가마술 세발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시를 통해 북곽 선생이 동리자와 관계를 맺고자 함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③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유(儒)는 유(誨)라 하더니(선비는 아침을 잘한다)’라고 하여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18. 정답 ③

해설 [의미론] 난도 中

안 부정문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은/는’과 같은 보조사를 취해 부정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은 ‘절반은’이라 하여 의미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원고를 보내는 것을 ‘투고(投稿)’라 하는데, 다시 ‘원고(原稿)’라는 말을 쓰고 있다.
→ 제출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도보(徒步)’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을 뜻한다.
→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도보로 돌아다녔다.
- ④ ‘승객’이 ‘타다’와 겹치고, 자매결연(姊妹結緣)과 ‘맺은’이 겹친다.
→ 버스 안의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한 분들이다.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는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19. 정답 ④

해설 [독해] 난도 下

마지막 문장을 시작하면서 ‘따라서’라고 하여 앞의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결론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중근은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 앞선 내용들에서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답은 ④이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 정답 ①

해설 [독해] 난도 中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언어 자살이다. 그렇다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스스로 행하는 언어 자살과는 다른 것이다. 언어 말살 정책을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①은 잘못된 진술이다.